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6**

홍수 이야기(창 6-9장)와 메소포타미아 유사점

1. 바빌로니아 홍수 이야기

의 유사점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와 성경의 홍수 기록 사이에서 우리는 두 이야기의 일반적인 구조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둘 다 훌륭한 배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크기가 다르므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그림을 더 제시했습니다.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에 관한 한, 두 이야기 모두 영웅과 그의 가족, 동물과 새가 배를 통해 멸망에서 구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다시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름은 성서 기록의 주요 인물인 Zuisudra, Utnapishtim, Atrahasis 및 Noah 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르며 사이에는 어원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라는 이름과 다른 이름들. 게다가 성경 기록에는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더 적습니다. 노아는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와 동행했습니다. 길가메시(Gilgamesh) 서사시에서 우트나피슈팀(Utnapishtim)은 이야기했고 나는 그 본문에서 배에 탄 그의 모든 가족과 친족은 물론 모든 장인과 뱃사공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족과 친족, 그리고 모든 장인과 이름이 주어진
 뱃사공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수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 영웅은 가족과 친척, 장인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수메르어 버전에서 Zuisudra는 그의 친척들과 그의 아내, 아이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세부 사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 사건은 조건이 방주를 떠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새들을 풀어 놓은 또 하나의 예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와 성경 둘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이야기에는 세 번의 새 방출이 있고, 성경 이야기에는 네 번의 방출이
 있습니다. Utnapishtim과 Noah는 둘 다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를 풀어 놓은
 반면 Zuisudra는 매번 여러 마리의 새를 풀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트나피슈티는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순서대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까마귀 한 마리와 비둘기 세 마리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먼저 풀어주고 우트나피슈티는 까마귀를 마지막으로 풀어주었습니다
 . 제가 아직 언급한 책은 없지만 당신의 참고문헌에는 있습니다. 바빌론 창조
 이야기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비교한 책을 쓴 Alexander Heidel은 *The Gilg
 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라는 책도 썼습니다. , 이는
 바빌로니아 기록과 비교하여 성서 기록을 잘 연구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참고문헌 10페이지 마지막 항목 옆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 제목은 까마귀가 더 왕성한 새이기 때문에 Utnapishtim 측의 논리에 실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논리적 진행은 노아가 활용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더 왕성한 새가 먼저 비둘기를 낳는 반면 Utnapishtim은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유사점에 대한 설명 어쨌든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지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바빌론과 성경 이야기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언급하고 간략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원시 셈족/성경 기록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 내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성경의 설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설명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를 뒤집습니다. 셋째, 둘 다 공통된 원본 소스로 돌아갑니다.

1.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원시 셈족/성경 기록에서 차용되었습니다. 첫째,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원시 셈족/성경 기록에서 차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적어도 기원전 2000년경에 존재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빌로니아 버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 기록은 모세 와 그의 글 과 관련된 기원전 1200-1400년경입니다. 오경의. 상대적인 연대 측정은 현존하는 본문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기록이 더 이른 것임을 암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이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참고문헌에서 Clay의 *The Origin of Biblical Tradi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23 의 10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Clay는 165페이지와 166페이지에서 이 진술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독일어로 쓰여진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가장 초기 버전이 수메르 언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메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베를린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 문명을 발굴하다가 현존하는 셰익스피어의 가장 오래된 사본인 독일어로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사본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은 많은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클레이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원래 기원전 2000년경에 아카디아화되었던 아모리인의 전설로 쓰여졌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아모리인은 메소포타미아 서쪽에 사는 셈족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이야기가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로 들어와 아카디아화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는 그것이 셈족이 서쪽에서 가져온 아모리 전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클레이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원시 셈족 설명이
수메르에 있고 동일한 원시 셈족 설명이 성서 기록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다면, 그 설명에서 이 아카디아화된 버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에 있어서 원시 셈족 설명의 단절은 우리가 성경적 설명을 갖고 있는
형태로 내려오는데, 즉 아카디아어는 원시 셈족/성서적 설명에서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아카디아의 이전 문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에서 파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식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어적 논의에
참여하는 아모리트 이름과 단어를 기반으로 진술을 하지만 그것이
아카디아화되었고 원래는 아모리트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 히브리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계좌를 빌렸다

물론 두 번째 관점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원시 셈족의
설명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태블릿이나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이론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인의 이야기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은 이 메소포타미아 계정이나 아카디아 계정을 갖게 되었고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빌려서 메소포타미아 계정에서 파생된 성경적 계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종류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기록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홍수와 같은 종류의 홍수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뼈대는 그렇습니다. Hiedel은 이 제안에 대해 논평하고 26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경우 우리는 성경과 바벨론의 대홍수 유산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용 가능한 증거는 창세기와 바빌로니아 번역본 사이에 유전적 관계가 있다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골격은 동일하지만 살과 피, 그리고 무엇보다 디테일과 정신이 다르다. 우리가 히브리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 이야기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구조가 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자료가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에서 빌려온 것이라면 왜 발견한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씨. Von Rad의 분석: 두 가지 모두 공통 소스와 독립적입니다 . von Rad의 창세기 주석에서 von Rad는 우리가 그의 결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1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당신의 참고문헌에서는 11페이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바벨론 이야기의 성경적 전통과의 관계에 대한 바벨/성경 논쟁이 최고조에 달한 지 40년이 지난 오늘날, 어느 정도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두 번역본 사이에는 물질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바빌로니아 번역에 대한 성경 전통의 직접적인 의존이라고 더 이상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이가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성경 자료가 바벨론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고 가정 할 수는 없습니다 . 그가 대체하는 것은 이것의 더 세련된 버전입니다. 그는 두 버전 모두 아마도 수메르에서 유래한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의 독립적인 배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전통을 독립적으로 배열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민 당시 가나안에서 홍수 전통을 만났고 그것을 그들의 종교적 사상에 동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순수한 가설이다. 그는 단지 그것을 성명서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이민 당시 가나안에서 홍수 전통을 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적 사상에 동화시켰습니다.” 가나안 홍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인들이 채택한 이야기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가정하에 유사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줄을 그은 또 다른 제안은 직접적인 의존성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있는 공통 소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소스가 무엇인지 다시 궁금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적인 측면을 넘어 홍수의 자연적, 역사적 측면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자들조차도 세계의 수많은 홍수 이야기가 국지적 재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디언, 페르시아인, 아프리카인, 호주인, 에스키모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등 사이에 무용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로 인한 홍수의 놀라운 균일성이 있습니다. 실제 우주 경험은 확실히 종종 흐려지고 종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나중에 국지적인 홍수에 의해서만 수정되는 원시적 기억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홍수 이야기가 지역적으로 모든 국적과 민족에 걸쳐 분포된 정도이며 이야기의 균일성은 이 모든 것 뒤에는 일종의 실제 우주 경험이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 국가 발생의 공통 원인 이제 세 가지 가능성 중 세 번째가 국가 발생의 공통 원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홍수가 있었다고 말하며 그 전통은 메소포타미아로 전해졌고 다른 전통은 성경 자료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유사점을 설명할 만큼 충분하고, 차이점을 설명할 만큼 다양한 전승이 있었습니다. 둘 다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실제 사건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Von Rad는 이러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전통 뒤에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제안하며, 내 생각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종종 역사성을 주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획일적인 캐릭터 홍수 이야기를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그 주장을 조심해야 하며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마지막 항목 10페이지에 있는 참고 문헌을 보면 *인류학과 현대 과학 및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1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경적 홍수의 실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때 그것을 경험한 단일 국가의 모든 인류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에 대해 논평하면서 인류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이주 없이 융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 융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홍수 이야기 외에도 놀랍도록 균일한 다른 전설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마술 비행 또는 장애물 비행으로, 특히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및 인도네시아의 원주민과 역사적 민족 모두에게 전 세계에 완전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오우거로부터 도망치는 특정 구조와 장애물을 형성하는 어깨 너머로 뒤로 던져진 물체가 있습니다. 돌이 산이 되고, 원뿔이 덩불이 되고, 기름이 물이 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세부 사항은 항상 숲을 덩불로, 기타 액체를 기름으로 변경하는 등 사소한 변경만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래되고 널리 퍼져

있으며 획일적이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홍수 주제의 다양성 역시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그렇게 균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류학자들은 마술 비행과 다양한 홍수 기록이 광범위하고 지리적으로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한 집단의 이야기가 기원 중심에서 천천히 퍼지면서 다른 집단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전설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홍수의 실제 현실에 대한 증거로 간주될 수 없으며, 성경의 기록과 가장 유사한 홍수 기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시간과 기념을 위해 세대를 거쳐 전해주었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법비행 발생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가 있으므로, 그 주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벤트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런 다음 분기하고 그렇게 환상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기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되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성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산을 통해 언어, 민족, 문화적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고, 거기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데, 그것이 반드시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 이야기에 대해 내가 발견한 놀라운 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겪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균일하고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von Rad가 역사성에 대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역사성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인디언 출신도 있는 것 같아요. 세부 사항은 다시 다르지만 더 가깝습니다. 나는 홍수 지질학이 이 강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B1의 10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료의 일부를 읽고 싶다면 책의 다른 출처와 양면을 여러 가지 제공했습니다.

6. 대홍수 이후의 세계를 지배하는 조건 a. 인간과 동물의 생명의 번식과 유지를 위한 방향 좋습니다. 6으로 가겠습니다. 6.은 "대홍수 이후 세계를 지배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9장에서 처음 17절을 발견합니다. 개요 시트에 없었던 몇 가지 하위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그래서 가. 6절 이하에는 처음 일곱 절에 "사람과 동물의 생육과 유지에 관한 이치" 입니다. "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그들은 당신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푸른 식물을 주었듯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러나 생명의 피가 남아 있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피에 대해 나는 반드시

회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동물에게 회계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각 사람에게도 동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번성하고 거기서 번성하라’

그래서 당신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번식시키고 유지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십니다. 비록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류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제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의 임무였습니다.

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 통치권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타락 전 상태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제지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진술은 사람이 동물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푸른 풀과 같이 살아 있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1장 28절로 돌아가면 동물들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졌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동물들로부터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양 떼의 첫 새끼를 가져왔으며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셨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 인간을 위한 봉사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이전의 징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노아 시대 이전에도 사람이 동물을 먹었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 이전에는 야채만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당신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침묵 속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그 주제에 대해 아무 것도 단언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추가된 조건은 4절에 있습니다. “피가 있는 생명 있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즉, 동물의 피를 뽑아 먹기 전에 그 피를 동물에게서 빼내야 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자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코셔로 간주되었나요? 네, 그것도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Wenham의 주석에서 그는 레위기의 피에서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또한 죄를 속죄하는 것은 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성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즉, 피의 희생을 관리하고 아주 초기에 피의 중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나중에 있을 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다소 추측에 불과합니다. 동물은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어지지만 피와 함께 먹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목을 졸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인간 생명의

생육과 번성과 신성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물을 다스리게 되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게는 사형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나는 당신이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므로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들은 그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책에서 그 내용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5장에 이르면 계획적인 살인과 구별되는 사고사를 위한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이루어졌고 나는 계속해서 그 장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신성한 법령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동물들을 사람에게 주셨고, 피를 먹지 말라는 제한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레위기 17장 11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레위기 17장 11절이라고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제단 위에 주었으니 이는 너희 영혼을 속죄하려 함이라 . 그것은 영혼들을 속죄하는 피니라.” 내가 보기에 그 의미는 희생 제도에 대한 추가 입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신약성서에 오면 희생 제도가 포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결함과 부정함과 관련된 모든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실제로 성취한 분이 오시면 없어질 것 같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식법이 시행된 기간을 넘어서도 그 규정이 계속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모자이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제도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 방식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좋아요, 사형에 관한 한, 심지어 사형을 넘어서는 것까지, 정부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칼의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의 전체 문제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영혼은 더 높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읽습니다. 2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두려워하느니라.” 4절 “그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니 만일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는 헛되이 칼을 가지지 아니함이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시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보복하시는 자시니라.” ” 그것은 칼의 권세를 잡는 정부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문제가 여기 창세기 9장에서도 다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권세를 부인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부들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 그 권리는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으며 많은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칙이 부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창세기 9:8-17에서 발견되는 노아 언약

음 그건 a였어. “인간과 동물의 생명의 번식과 유지를 위한 방향 .”

비. 그것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노아 언약” 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과 너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나온 모든 것에

세우노니 땅 위의 모든 생물과 함께 방주에 들어 있으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노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땅을

침몰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만물의 증거가 되리라 나와 땅

사이의 언약.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마다, 나는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물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므로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증거는 무지개니 무지개가 아니 니라 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합법적인 땅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구름을 땅 위에 가져올 때에 구름 가운데에 무지개가 보이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은 그것을 신이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인간의 용어로 말하는 의인화적 또는 의인화적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그 절은 신이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이 시점부터 지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고 마지막 심판, 종말까지 계속되는 무대로 보존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홍수를 가져오셨던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7. 가나안의 저주 9장 “가나안의 저주” 후반부인 7장으로 가겠습니다 . 18절과 19절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곧바로 2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의 표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이요, 그들에게서 백성이 나와서 땅에 흠어지니라. 흠의 사람인 노아는 포도원을 심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웠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였느니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의 영토를 확장하시기를 빕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햄과 노예 제도 이제 이것은 여러 성경 구절 중 하나이지만 주로 이 나라의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을 지지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 온 구절입니다. 당신의 참고문헌 11페이지 2번째에 언급된 책이 있습니다. JR Buswell III, “노예 제도, 분리 및 성경.” 당신은 JR Buswell 주니어의 신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학자이자 이 작은 책을 쓴 그의 아들입니다. 16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흑인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노예 제도 옹호자들은 흑인 종족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찬 가정에 성경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및 함의 후손이 분산된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언급은 자동적으로 역사적 시대에 이 인구가 흑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되었습니다. 흑인들이 노아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들의 특성과 함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예 제도 옹호론을 진행한 길이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가나안은 그 형제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고 말하는 구절을 봅니다. 이 텍스트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비. 가나안의 저주 이제 문제는 그러한 견해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답은 “아니오” 이다. 그런데 그 구절을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19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언급하면서 소개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이다. 함(Ham)은 가나안(Canaan)의 조상이며 그들의 전체 이름은 스트립(Ham)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사건 이후에 저주가 선언된 것은 함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함과 노아의 사건, 저주는 25절에서 가나안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다.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 중 가나안은 넷째인데 반드시 그런 순서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주는 함의 아들 중 하나인 가나안에게 있느니라. 나는 우리가 노아의 그 말을 단지 분노와 분노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저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측이다. 나는 여기서 노아가 실제로

전체 경험의 계시를 통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 있을 일과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계보에 대해 예언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노아의 악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 구절에서 말하는 것들을 인간의 수단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띄는 진술이므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공개합니다.

물론 문제는 왜 함에게 저주가 아닌 가나안에 저주가 내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므로 무엇을 했나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 노아가 함에게서 표현된 특성을 이해하고 보았으며 그가 행한 일이 그의 아들 가나안에서 그리고 아마도 더 큰 정도로 영속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곳은 가나안이거나 적어도 가나안의 후손들이다. 따라서 아마도 그 대답은 노아에게 나타난 특성이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도 더욱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성령에 의한 노아의 인식에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 관한 많은 내용을 나열하는 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및 이 모든 일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주민들로 인해 그 땅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죄악을 보응하리라.”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사람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 땅은 더러워졌느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너희 전에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좇지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제 이 장의 첫 번째 부분 전체에 나오는 가증스러운 관습 중 하나는 성적 학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아마도 저주가 가나안에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가나안 사람들의 경향이 아버지 함에게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의 범죄는 무엇이었는가? 이 시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그 본문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주와 축복이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선포된 저주와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오늘은 그만 두겠습니다. 가나안의 범죄와 함의 범죄는 무엇이었는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두 어깨에 메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얼굴을 뒤로 돌리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함의 범죄는 무엇이었으며, 이제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칼린 다릭스(Carlin Darix)는 그것이 셈과 야벳 형제의 경건하고 겸허한 태도와

대조되는 뻔뻔한 관능미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기뻐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를 그의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을 나타내고 아마도 함의 비뚤어진 감각적 본성을 나타냅니다. 이제 당신이 범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며 24절을 지적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고.”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22절에서 함이 자기 아버지의 별거벗음을 보았다고 말할 때 어떤 일탈적인 성행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별거벗음을 보았다”고 제안합니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곡한 표현과 비유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말한 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절을 그것과 맞춰야 하는데 23절은 단지 아버지를 드러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다음에는 저주와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lsi Johnson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